

AI를 잘 쓰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

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| AI 활용법

구요한 / CMDSPACE

2026.09.10 목요일 14:00-15:00

제가 소개할 것은 제가 운영하는 구조입니다

01 10,000+ 노트의 지식 생태계	02 기업 경영진 교육과 코칭 / 연구자 교육
03 지식관리 → 소프트웨어 → 강의와 글	04 cmdspace.work

AI는 쓰는데, 일은 왜 매번 다시 시작할까요?

질문은 많아졌다 /	업무 기록은 남았는가
답은 빨라졌다 /	우리 맥락은 이어지는가
초안은 늘었다 /	확인할 일도 늘지 않았는가

잘 쓰는 사람은 세 가지를 다르게 설계합니다

맡길 업무	기억할 맥락	통과할 기준
-------	--------	--------

묻지 않고 맡긴다

답변 한 번이 아니라

반복될 업무를 넘긴다

좋은 질문보다 작업 계약이 먼저입니다

질문

질문: 오늘 한 일 정리해줘

작업 계약

위임: 매일 정해진 시각에 승인된 기록을 읽어라

산출: 결정 / 근거 / 다음 행동을 구분해 저장하라

예외: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말고 비워라

업무일지는 기억을 짜내는 문서가 아니라 기록을 모으는 결과물입니다

2026.09.08 실제 자동 생성 업무기록 발췌

19:13 ... 시스템 문서 갱신

cmds-share: ... 표가 raw 파이프 텍스트로 공유되던 버그 수정

활동 시각 + 한 일 + 구체적 변경 내용

연구와 행정은 달라도 기록의 구조는 같습니다

연구 연구: 관찰 / 조건 / 해석 / 다음 실험	행정 행정: 요청 / 근거 규정 / 결정 / 다음 조치
---	--

공통: 원문 링크 / 담당 / 확인할 사항

자동으로 쓰는 것보다 무엇을 읽게 할지가 중요합니다

01 읽기 범위는 최소화	02 원본은 보존
03 사실과 추정은 분리	04 외부 전송은 승인된 경로만

여러분의 금요일 오후에서 반복되는 일 하나만 고른다면?

언제 시작할까?	무엇을 읽을까?	어디에 남길까?
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무엇이면 멈출까?

매번 설명하지 않는다

AI의 기억력을 기대하기보다

맥락이 남을 자리를 만든다

맥락은 길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찾아 쓰는 것입니다

업무 배경: 목적 / 대상 / 제약	참고 근거: 원문 / 날짜 / 버전	이전 판단: 결정 / 이유 / 남은 질문
---	---	--

포맷은 사고를 강제합니다

내용만 남길 때

‘회의 내용’만 있으면 요약이 남습니다

구조를 남길 때

‘결정 / 근거 / 담당 / 기한’이 있으면 일이 남습니다

마크다운은 목적이 아니라

사람과 AI가 함께 읽는 연결 형식입니다

좋은 검색은 답에서 끝나지 않고 근거로 돌아옵니다

질문 질문: 반복 업무를 맡기기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할까?	찾은 노트 찾은 노트: Human-Agent Handoff Cycle	원문 확인 원문 발췌: 에이전트가 만들고, 사람이 판단하고, 다시 에이전트에게 넘긴다
---	---	---

실제 검색·원문 확인 | 2026.09.10

쌓아둔 자료와 다시 쓸 지식은 다릅니다

01 Connect: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연결	02 Merge: 여러 근거를 내 언어로 통합	03 Develop: 업무와 도구에 적용	04 Share: 결과를 내고 다음 맥락으로 환류
---	--	---	--

새 담당자와 새 AI에게 같은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까?

맥락 파일 하나	원문으로 가는 링크	누가 언제 고치는지
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

검수하지 않고 기준을 준다

검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

기준을 먼저 실행 가능하게 만든다

1,000개 가상 응답 실행을 하나의 규칙으로 관리합니다

정책연구 프로젝트의 합성 페르소나 사례	자동화한 것: 생성 / 검사 / 실패 회수	실제 사람 대상 조사나 대표 여론이 아닙니다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규모가 커지면 좋은 요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

입력: 페르소나 / 문항 / 실행 조건	출력: 정해진 항목 / 유효한 값 / 실행 식별자	실패: 누락 / 형식 오류 / 중단을 따로 기록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기준을 주면 실패도 다음 행동이 됩니다

01 기준: 점수는 1-5 / 근거는 필수	02 입력: 점수 7, 근거 없음 → 검사 실패	03 다음 행동: 오류를 돌려주고 재시도	04 범위·근거를 다시 검사 → 통과 또는 중단
--	---	---	--

교육용 예시 | 실제 조사 문항·응답 아님

진행률 하나로는 끝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

계획된 실행 / 시도한 실행

검사를 통과한 결과 / 재시도 대기

남은 실패 / 사람이 판단할 예외

운영 원리 예시 | 비공개 연구 결과는 미포함

형식이 맞는 답과 믿을 만한 결론은 다릅니다

자동 확인: 누락 / 값의 범위 / 중복 / 형식	사람의 판단: 대표성 / 편향 / 해석 / 활용 범위	'통과했다'와 '타당하다'를 구분한다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세 가지 차이는 결국 하나의 구조입니다

업무를 정의하고	맥락을 남기고	기준으로 반복한다
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

같은 주간보고도 말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

01 Prompt: 이번 주 보고서 써줘	02 Context: 활동 기록과 지난 보고서를 함께 제공	03 Harness: 승인된 폴더를 읽고 초안만 저장	04 Loop: 누락을 검사하고 예외만 담당자에게
---	---	--	--

세컨드 브레인 보관함을 넘어 작업 환경이 됩니다

노트: 관찰과 출처가 남는다

위키: 반복 쓰는 개념과 관계를 엮는다

에이전트: 필요한 지식을 읽어 산출물을 만든다

새 결과와 검토 기록 → 다음 맥락

AI를 잘 쓰는 능력은 이미 하던 일을 다시 설계하는 능력입니다

연구자: 재현 가능한 조건과 근거

행정·지원자: 반복 가능한 절차와 책임

공통: 좋은 결과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가

내일부터는 파일 하나와 업무 하나로 시작하세요

입력과 작업 기준

입력: '금요일 공개 세미나 안내, 장소 미정'

요청: 제공된 문장만 사용해 공지 초안을 써라

형식: 일정 / 장소 / 확인할 일

기준: 모르는 정보는 '미정'으로 남겨라

결과

결과: 금요일 / 미정 / 장소 확정 필요

교육용 예시 | 승인된 AI 작업 공간에 자료와 기준을 함께

자기 시스템은 말이 아니라 근거로 점검합니다

Prompt:	요청
Context:	맥락
Harness:	실행 환경
Loop:	반복과 검증
Interop & Governance:	연결과 책임

AKM Index | akm.cmdspace.work

빈손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만들어 둔 것을 드립니다

시스템 파일 | system.cmdspace.work

CMDS 스타터킷 | github.com/johnfkoo951/cmds-vault

LLM Wiki 스타터킷 | github.com/johnfkoo951/cmds-llm-wiki

CmdMD | cmdmd.cmdspace.work

AKM Index | akm.cmdspace.work

좋은 답변은 한 번을 돕고, 좋은 구조는 다음 일도 돕습니다

01 문기에서 말기기로	02 재설명에서 맥락으로	03 사후 수정에서 기준으로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구요한 / CMDSPACE